

고린도전서 강의안(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장

I. 고린도전서의 전체 강의 목적

- 1)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로 인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교회였다.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현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성도들이 있고 이로 인해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성도들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른 성경관인지 정리하고자 한다. 즉 신앙의 성숙함을 통해 교회를 보도록 한다.

II. 고린도교회의 상황과 고린도전서 기록하게 된 동기

1. 고린도 교회의 설립 과정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을 거쳐 기원후 50년 무렵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된다. 여기서 1년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이다.(행18:1-17)

2.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배경

이후 바울은 기원전 53년경에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행18:23) 에베소에 도착하여 3년을 지내게 된다. 이때 고린도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고린도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 신앙적인 답변을 주기 위해 기원전 55년경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를 집필하게 된다.

III. 고린도 시와 고린도 교회

1. 고린도 시에 대하여

① 아가야의 지방의 수도

기원전 146년 고린도는 로마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1세기 가량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기원전 44년 시저에 의해 재건되었고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정비되었다. 기원후 1세기경 고린도 시는 인구 약 70만 명이(시민- 약 20만, 노예- 약 50만) 거주하는 로마제국의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② 해상 교통 요지

고린도는 세계 주요 항구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안디옥 등을 잇는 교통,

통신, 무역, 전쟁 전략 등에 있어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최고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국제도시이다. 이집트, 팔레스틴, 소아시아 등의 동방지역과 그리스, 로마 및 여타 서방세계를 연결시키는 해상 교통요지였다.

③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

기원전 44년에 고린도시가 재건된 이후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경제적인 중심 역할을 했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계층이 모이게 되었다. 고린도에는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헬라, 애굽, 시리아, 가나안, 아시아 출신 선원들이 체류하였는데 항구 도시의 특성상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많은 신전을 세워졌다. 애굽 사람들이 세운 이시스(Isis)와 세라피스(Serapis)신전, 에베소를 대표하는 아데미(Artemis), 수로보니계(Syria phoenicia)사람들이 세운 아스다롯(Astarte)신전, 브루기아 사람들이 세운 마그나 마터(Magna Mater) 신전을 비롯한 고린도 광장 남쪽의 데메트(Demeter 풍요의 여신) 신전, 고린도 해협 북동쪽의 포세이돈(Poseidon, 바다의 신) 신전, 고린도 광장 북서쪽의 아폴로(Apollo) 신전, 고린도 광장 남쪽의 아프로디테(Aphrodite, 사랑의 신전) 등이 존재했다.

④ 개방된 문화

거대 상업 도시가 됨과 동시에 나타난 것은 다양한 문화가 전해지게 된다. 고린도 시는 다양한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상당한 타락된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되었던지 사람들은 ‘고린도화하다(Corinthianize)’라는 말을 ‘성적 부정을 행하다’는 뜻으로 통용하였다.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다.(고전5장)

2.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1) 구성원

① 고전1:26-28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아 대부분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한 삶들, 문벌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러나 고린도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있었다. 또한 가이오가 롬16:23에 언급된 것처럼 교회를 돌보아주는 인물이라면 그는 사회적 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위가 있는 상류층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또한 고전7:21-22에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래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로 보아 고린도교회에는 노예 계층이나 노예 출신의 자유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자신들의 집을 교회 모임의 장소로 자신의 집을 내어줄 수 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던 상류층에 속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중간계층 혹은 중 하류층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 ① 당파(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문제
- ② 근친상간과 음행문제
- ③ 성도간의 송사 문제
- ④ 결혼과 이혼 문제
- ⑤ 여성들의 문제
- ⑥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 ⑦ 바울의 사도권 문제
- ⑧ 성만찬 문제
- ⑨ 그리스도의 공동체: 한 몸
- ⑩ 은사 문제
- ⑪ 부활문제

IV. 발신자와 수신자

1. 발신자: 바울과 소스데네
2. 수신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각처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구별의 의미)사람들
3. 다양한 질문

1) 소스데네는 누구인가?

행 18:12-17에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으며, 유대인들이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송사(訟事)했을 때 바울 대신에 그들에게 매를 맞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소스데네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본 절의 인물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확히 누구인가를 확인할 길이 없다.

2)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는가?

① 사도란?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 특사”라는 말이다. 사실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사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다.

②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 - 당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로 인하여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당시 사람들은 사도라고 하면 12명의 제자들을 뜻하였고 바울은 예수님과 함

게 다녔던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고린도교회는 4개의 당파(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로 다양한 문제에 얽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을 추종하는 바울파가 있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유명한 사람들을 따르다하여 파를 형성했는데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식으로 하여 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결국 바울파가 아닌 다른 파의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고린도전서9장에서 답을 할 정도였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고지하고 편지를 썼던 것이다.

③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되었음을 밝힘으로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3) 바울이 수신자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바울의 의도성이 있다. 현재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행6장 -구제문제로 다투는 것들 사도들이 걱정함)

물론 교회도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당파로 인한 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어떤 개인이나, 이익을 위한 모임이나,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함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 바울 편지의 특징: 첫 인사말과 끝 인사말이 거의 동일하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 주는 것이다.

2. 배울 점

1) 바울은 먼저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를 정확히 보게 한다. 고린도교회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인의 감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자세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다. 나를 세우신 이가 주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은 보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게 할 것이다.

2)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교회는 인간이 세운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이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 사욕을 채우는 곳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된다. 오늘날 교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따라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